



김 승 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 과학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방향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몸에 좋은 식품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중국산 수입식품 중 멜라민 검출 사건 등에서 보듯이 해당 정부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은 급격히 높아져 이제는 완전무결(zero defect)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관리능력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발전되어야 하며, 식약청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4월에 ‘시험·연구·평가’를 주 기능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설립하여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평가원의 정책 방향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과학적 위해평가를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위해평가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간 위해평가가 사건 해결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이 다소 미흡하여 사실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일말의 불안감을 끼쳐드린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해평가 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해평가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구성원 모두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고 특히, 유해물질별 사례연구를 통해 실무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해요소별 위해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위해요인별로 평가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현안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위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긴급현안해결을 위한 ‘위해평가 긴급대응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해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예방적 위해평가를 위해, 한국인의 섭취 및 유해물질 노출실태, 건강영양조사 등 종합적 자료평가를 수행하고 한국인 실태를 반영한 맞

중형 위해평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위해평가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시험·검사 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분석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험법 등 시험검사업무를 표준화하고 품질보증시스템을 마련함은 물론 시험장비 밸리데이션, 국제정도관리 참여 등을 통해 신뢰성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속, 간편한 간이시험법 및 BT, IT, NT 등을 이용한 첨단 시험법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미래를 대비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평가원은 ‘식품 등 안전관리연구’ 사업을 통해 식품 위해요소 및 위해가능 영양성분에 대한 과학적 기준규격 설정, 안전성평가,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중장기 심층연구 강화를 위하여 2008년에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연구사업단을 출범하였으며, 2009년의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사업단에 이어

올해에는 ‘유해물질안전관리 통합노출평가기반’ 연구사업단 등을 시작하여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소비자, 업계 등 현장에서 원하는 수준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의 국제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산·학·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현안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평가원 전문가 연구회’를 운영하여 정보공유와 의견수렴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국제적으로는 WHO, FDA, USDA, NCTR 등 국제기관과 MOU 등 상호협력을 통해 정보교류 등 공조체계를 굳건히 하며, 또한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주관, OECD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평가원은 식품안전관리의 과학적 싱크탱크로서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든든한 전문가로서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끝**